

# 조계종 차기 총무원장 누가 될까?

▲차기 총무원장 누가 뛰고 있나  
조계종 차기 총무원장 선거는 현재로서는 종하(서울 관음사 주지), 법장(수덕사 주지) 두 스님의 양자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두 스님은 정대스님의 거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선거에 대비해왔다.

종하스님은 중앙종회의원 9선의 최다선 경력과 종회의장, 불교방송 이사장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종회 내 지지세를 다지면서 여러 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표심을 얻는데 주력하고 있다.

총무원 사회부장장과 중앙종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하고 10여 년간 교구본사주지연합회 회장을 맡아 온 법장스님은 오래전부터 원로의원과 선원,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공을 들여왔으며, 각종 행사에 빠지지 않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두 사람 외에 최근 들어서는 정연스님(전 포교원장)이 부각되면서 후보군에 합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종하스님과 정연스님이 같은 범어문중 출신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출마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교계 관계자들은 명확한 선거구도가 잡히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선거일정이 확정되더라도 선거일로부터 열흘 전에 이뤄지는 후보등록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문중과 종회 내 계파간의 이해득실에 따라 다른 구도

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현행 선거제나 구태의연한 종단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참신하고 수행자다운 비정치적 인물이 필요하다는 '새 인물론'이 소장파 종회의원 스님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노무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사회 분위기도 젊고 개혁적으로 흘러가는데, 불

교도 이를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기류가 대세를 이룰 경우 양자구도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전망하기는 시기상조다.

▲총무원장 선거는 언제?  
조계종 종법의 총무원장 선거법 제28조

에는 '총무원장 권위 시 3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 조항만으로 본다면 2월 15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동법 제12조에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부터 3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돼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집돼 선거일정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면, 공고한 날로부터 최소한 30일간의 공고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2월20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장은 총무원장 선거법 제13조에 따라 각 교구에서 10명씩 선출되는 240명의 선거인단과 종회의원 81명 등 모두 321명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사퇴시기 앞당긴 이유는 무엇인가  
이달 24일 사퇴하겠다고 지난 8일 밝혔던 것과 달리 시기를 앞당긴 것은 종회 내 반대 계파 종회의원들이 임시종회를 소집하고, 또 이 가운데 일부가 "사퇴의사를 밝힌 이상 총무원장 직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져오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논란이 더 깊어지기 전에 출가분에게 동국대 이사장으로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명우 기자 mwahn@buddhania.com

## 종하·법장스님 출마 유력

### 소장과 종회의원 중심 '새 인물론' 확산



◇정대스님이 15일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이 배석한 가운데 총무원장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동국·승가대 예비승 수행관 입방 의무화

### 조계종 교육원, 3월부터 학사관리 강화

오는 3월부터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의 예비승(사미·사미니)들은 의무적으로 수행관에 들어가야 한다. 또 동국대 불교대학 2년 이상 재학중 출가한 사람은 지금까지 졸업만 하면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4년을 기준으로 부족할 교육 연한을 채워야만 한다.

조계종 교육원은 이같은 예비승 학사관리 규정을 오는 3월 1일부터 엄격히 적용하는 등 예비승의 교육 및 계율 강화에 나선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7월 마련된 것으로,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등 기본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예비승들의 면학풍토가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예비승 학사관리가 강화되는 3월부터 수행관에 입방하지 않는 예비승은

4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및 구족계 수계자격을 박탈당하는 한편, 중비 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동국대 불교대학 재학중 출가한 사람도 4년간의 기본교육을 마쳐야 한다. 예를 들면 불교대학 2학년 재학중 출가한 사람의 경우는 동국대 3, 4학년 2년의 기간만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고, 따라서 동국대를 졸업한 후 강원이나 중앙승가대에서 2년간 더 공부를 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3학년에 출가했다더라도 졸업만 하면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강원 학인들에 대한 학적 변동도 엄격해져, 전학 및 편입학은 학년 초 30일 이내에에서만 가능해진다. 한명우 기자

### 남북불교교류 조직강화 통일기금조성

## 민추본, 올 3대사업 방향 제시

민추본이 남북불교 교류사업과 통일교육 진행 및 회원조직사업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통일기금 조성을 올해 사업추진 3대 방향으로 설정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정련)는 8일 서울 하림각에서 열린 2003년 신년하례회에서 이 같이 발표하고 △북한사찰 및 민족문화재 단청 봉사 협력 △금강산 신계사 복원 △불교계 지도자 방북 △지속적인 대북지원 △통일교육 진행 및 회원조직화 등을 5대 중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스님, 민추본 상임집행위원장 학담스님, 통일연대 상임대표 한상렬 목사 등 100여 사부대중이 모인 신년하례회에서 본부장 정련스님은 인

사말을 통해 "현재 북한 핵문제 한반도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나 상생의 정신에 입각해 평화의 해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민추본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년하례회 2부 행사로 열린 '2003년 남북관계 전망과 북핵 문제' 토론회에서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관계의 지속을 통해 북한의 극한적 입장을 막아내고 한미 공조를 통해 미국의 강경대응도 막아내는 완충적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북핵문제가 극단적 상황으로 악화되는 것을 완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우리의 일차적인 노력"이라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 재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재보광고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재보를 기다립니다.

니다.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진(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재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02)722-4162, buddhanews.com

## “‘세가지 약속’ 잘 마무리 돼 사회활동 소홀 아쉬움 남아”

### 조계종 총무원장 사임한 정대스님

"남은 임기까지 부여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유감스럽습니다. 아쉬운 점도 많지만 후임 총무원장 스님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상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사퇴한 배경에 대해서는 "후임 총무원장의 선거 일정이 동안거 기간과 중복되는 것은 수행중단의 면모에 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를 피하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일부스님들이 사퇴

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혼란을 초래할 것이 염려돼 즉각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협화음만 없으면 우리 종단은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종단안정을 거듭 강조한 정대스님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담이 따르겠지만 총본산 성역화 불사는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신임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명우 기자 mwahn@buddhania.com

## 집행부와 협의 업무 공백 없게

###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선용스님

"갑자기 무거운 짐을 지게 돼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종법에 정해진 대로 직무에 충실할 것이며, 집행부 스님들과 협의해 공백없이 총무원 업무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부담이 크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잘 하리라 믿으며, 총무원은 행정적인 지원에 충실하면서 철저히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스님의 총무원장 사퇴에 따라 다음 총무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총무원을 이롭게 된 총무부장 선용스님은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기 총무원장으로 어떤 인물이 적합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안정과 화합을 이룰수 있는 분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새롭고 정갈한 음식점

## 삼척동 고조선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한식 일품요리로 건강을 지킵시다

사전 전화 예약 : 02)732-7355  
삼척동 우리은행 뒤편(우리은행 주차장 이용)